

지역 소식통

정읍시 보건소,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정읍시 보건소는 흡연 폐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2일부터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올해 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3145개소 중 의료기관, 1000㎡ 이상 건축물 및 공장 일반음식점 등 1968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실내 체육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금연담당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된 점검원 7명이 3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이에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점검,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활동을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31일까지 하계 전략작물 직불금 추가 접수

정읍시는 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작물 신청을 지난 오는 31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논에 벼 이외의 전략작물을 재배해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런 전략작물 직불금 추가신청 기간에는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인 0.1ha 이상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에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벼를 총체비(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급당가는 올해 신규 품목인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ha이고, 두류·가루쌀은 200만원/ha 조사료는 430만원/ha이다. 또한 동계에 밭이나 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만원/ha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12월에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업발전 위해 '한발 더'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등 농업인 불편 해소 추진

고창군이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심화, 잦은 기상이변 등을 극복하고,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 한발 더 앞서 뛰겠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최초'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준공됐다.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최신 냉난방 시설을 비롯하여 안전 시설 생활 동선까지 입주자를 고려한 세심함이 눈에 띈다. 2개의 CCTV, 소방 자동감지기, 기숙사 내부 방충시설 등은 입주자의 안전을 책임진다. 일을 마치고 도착하는 주차장부터 외부세척장 입구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1층에 마련된 샤워장은 농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근로자의 실제 동선을 반영하여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를 제시해 오고 있다.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류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할 수 있으며,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에는 남자는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으로 하고 여자는 하한 9만원~상한 11만원으로 결정됐고, 다행히 7월 현재 안정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사상 최대 15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80여 농가에 배치돼 고구마, 수박, 양파, 인삼, 고추 등 재배부터 수확까지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고창군 177농가(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50곳+일반농가 27곳)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만족도가 7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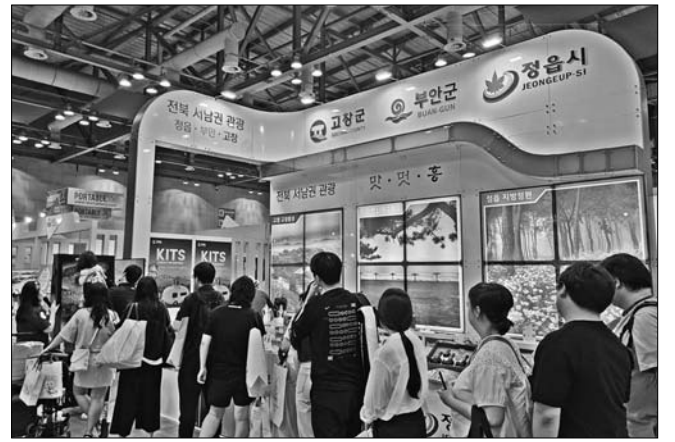
올 1월부터 52개 농업 보조사업(군비) 신청서류가 확 줄어 들었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견적서 등 7~8종의 서류를 첨부해야 했다. 이에 군은 행정전산화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 자체 확인으로 대체했고, 농업인들은 신청서와 개인정

보 동의서만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대표 농정 공약으로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기도 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고창군과 전국 6개 지역에 한해 노지수확이 신규 가입 품목으로 추가됐다. 또한, 농업재해 시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 규정(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북특별자치도 2번째로 제정했다.

이밖에 고창군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확충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투입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단종 연동 비닐하우스 지원) △장기성 필름 구입비 지원 △시설원예현대화(하우스 환경시설, ICT 등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등 농가의 경영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협력 지자체인 정읍시와 고창군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했다.

'부안의 문화·관광자원 전 세계에 홍보'

부안군, 제9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부안군이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를 통한 관광 홍보에 나섰다.

부안군은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협력 지자체인 정읍시와 고창군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했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188개의 지자체·기관·업체가 참가해 국내 우수 지역관광 콘텐츠 및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공유하고 지역별 축제, 관광상품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다.

이번 '2024 번신비치페어'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흙추는 번신, 눈부신 해변'을 주제로 열리는 비치댄스 경연대회, 해변 워터 플레이존, 아이키(육)

를 포함한 댄스팀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며 특히 3일간 매일 불꽃놀이와 EDM 파티를 진행하여 한여름 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의 부안군 공식 SNS를 구독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올 여름 8월에 개최될 다양한 행사와 부안이 자랑하는 여러 명소를 전국에 소개할 수 있었다"며 "부안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도록 마케팅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장마철 이후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점검 철저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 영상간부회의서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건강취약층 건강 점검" 당부



이학수 시장은 22일 오전 영상간부 회의를 갖고 "장마철이 끝나가는 시기에 그동안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질환자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며 "음력에서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주변 어르신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가로등 불편 관련 민원사항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사전점검을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

소화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하는 물빛축제에 대비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물과 관련한 축제이니 만큼 축제 개최 전 안전점검을 꼼꼼히 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팔레스타인·베트남 등 외국 고위공무원 잇따라 고창 방문

팔레스타인 등 외국고위공무원들이 고창군에 잇따라 방문해 친선한 역사문화유산에 감동하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팔레스타인 공무원 등 22명이 고창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고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KIDS)가 수행하는 「팔레스타인 정부 및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대상 연수생이다.

팔레스타인 공무원들은 신재효관 소리공원에서 판소리, 가야금 체험을 통해 아름답고 웅장한 한국의 미에 놀라움을 자아내고, 고창의 대표사찰인 선운사를 방문해 탐방했다.

또 28일에는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 공무원 등 20명이 고창군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예술적 가치를 세계 각국에 홍보하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고창군의 방문을 통해 세계유산지원이 해외에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고 고창을 가족·지인들과 함께 재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외국인도 고창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장마 대비 배수로 정비 효과 만점

부안군은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로 관리 수준을 대폭 개선하여 이번 장마철에 단한건의 도로 파손없이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이번 장마가 끝나면 토사가 쌓인 도로 구간에 대해 물청소를 조속히 시행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구조적으로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중호우 기간 중 도로보수업무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으로 긴급출동

체계를 가동하여 우수맨홀 막힘으로 인한 도로침수 예방 및 원인제거, 포토홀 정비, 강풍으로 인한 도로변 잡목제거 등을 통해 단 한건의 피해사례가 없어 도로분야 적극행정이 빛났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기야 합니다

